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공동생활기념주일(27주년)이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학교 개학여행이 10일(월)부터 2박3일간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16일(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연령별사랑방 연합 찬양모임이 16일(일) 오후에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평양노회 북 시찰회가 지난 4일(화) 정릉제일교회에서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공동생활기념주일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지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10 호

2025년 3월 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움닫기, 사순절

지난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날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이마에 재를 묻혀 십자가를 그린 채로 방송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는 재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전통을 지킨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장관이 몸소 보여준 모습은 일부 국가 또는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 행위는 고대 이스라엘 전통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나 회개할 일이 있다면 주로 잣더미 위에 앉거나 머리에 뒤집어쓰곤 했습니다. 더구나 짐승을 번제물로 바친 뒤에 남은 재로, 사람의 죄를 씻고 부정을 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재는 사람이 맞이할 운명, 결국엔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이란 한계를 일깨우고 겸손하게 만드는 효과도 꾀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기념일인 부활절을 40일간 준비하는 사순절, 그 첫째 날이 재의 수요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40일간의 기간부터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던 인고의 시간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40이란 숫자는 출애굽을 해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기간, 홍수 이후 첫 탐지, 가나안 땅 탐지 기간,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른 기간 등, 새롭게 갱신되기 위한 숫자로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그를 본받아 40일인 것이며, 재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어떤 성격의 기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욕망과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실천하고자 하는 때인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재를 바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지켜야 한다고 기록된 기간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의미와 뜻을 받아서 금식과 기도, 또는 자기만의 삶의 절제

선교와 섬김

를 이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순절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시간이나 재화의 사용 방향을 좀 더 외부로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대 욕구에 해당하는 식사를 줄이거나(금식), 재물을 남들에게 베풀거나(자선), 개인적으로 쓰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쏟는 것(기도)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런 극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기간을 가지고자 한다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던져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40일 굶은 육체에 음식을 권하는 유혹, 무지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혹 등, 어느 것 하나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선 결국 이겨내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사순절은 일종의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 데이 같은 날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망설이던 마음을 실제로 만들도록 살짝 등 떠밀어주는 기회란 의미에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구태의연한 상술이라 할진 모르지만, 사랑의 문턱에 놓인 청춘에게는 그만한 도움받기가 없듯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게 해주는 40일간의 기다란 기념일이 아닐까요? 그 안에서 인간적인 실수와 유혹에 굴복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40일간의 역경을 거친 이후의 사람은 이전과 같을 상태일 수는 없겠지요.

네. 재의 수요일은 이미 지났지만, 결단을 내리기에 늦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험을 이미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번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내면에 한 움큼씩 재를 쥐고서 유혹들을 이겨내기를, 그리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 좋은 것을 입에 담으며 인내의 괴로움 뿐만 아니라 행복도 얻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71, 283 / 96

기도 :

성경 : 마태복음 12장

제목 :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1-121 예수: 안식일의 주인, 이방 사람들의 희망

해석: 율법(제사, 형식)이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랑이다.

적용: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실천하자.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함께 따르는 자가 되자.

22-37 예수: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과 말

해석: 자신의 것을 드러내려고 성령을 거슬러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적용: 성령을 거슬러 말하지 말자. 말할 때 덕(하나님 나라)이 되는 말을 하자.

38-42 예수: 악한 세대가 받을 표징

해석: 예수에게 표징을 구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징을 구했다.

적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주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갖자.

46-50 예수의 가족

해석: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적용: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 식구가 되자.

설중매(雪中梅)

눈 속에 피는 매화라 하여 설중매. 봄이 오는 길목에서 며칠 전에 많은 눈이 내렸고 아직도 그늘에는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지만, 내 고향 광양에는 매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고 하여 옛날 선비들이 그 절개와 지조를 높이 평가하며 매난국죽(梅蘭菊竹) 사군자(四君子) 중 으뜸으로 좋아했던 것이 매화다.

특이한 것은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하여 꽃의 우두머리 즉 '화괴(花魁)'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요즘 마스크에 범죤자 중 우두머리라는 의미의 '수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두머리 자체는 나쁜 뜻은 아닌 듯싶다. 아무튼 우두머리답게 눈이 오는 가운데 꽃을 피워 혹한의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매화가 나에게는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겨울만 주시지 않고, 겨울 다음에 따뜻한 봄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가 매화, 설중매이다. 마치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도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을 온다는 것을 이 봄을 맞으며 깨닫게 된다. 힘들 때는 어딘가에 피어 있을 매화를 찾기 바라며 내가 누군가의 매화가 되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것이다.

새싹사랑방 서병욱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33 : 1-3
2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5 : 2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185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

사도행전 1 : 1 - 14 설교자
620 생활공동체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19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10(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채영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증인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자 증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증인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보이는 형태는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됨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공동체적인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장성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수요일에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섯 명의 꾸러기와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다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영미 전도사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폭풍이 불 때 오히려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멀리 날아간다는 독수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어려움도 거뜬히 이길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들과는 다음에 동물원에 가서 독수리를 보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랑방공동체를 한 바퀴 둘러보았고 만들기 장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러기들과 선생님들 모두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꾸러기들이 제일 잘하니 올해도 행복한 꾸러기학교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꾸러기학교 새 학기 출발을 응원하고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날씨가 많이 풀려서 운동장 바닥이 물렁물렁 뒤죽박죽이었지만 아이들은 더 신나게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3월 4일(화)입학식 및 개학식이 있었습니다. 1학년 안서운 · 한이든 두 친구의 입학식에 정태일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꿈꾸는 학교 꿈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전해 주셨고, 이윤희 사무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입학생 소개에서 서윤이는 신데렐라 연기를 능청스럽고 멋지게 했고, 이든이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 주었는데 참 예쁘고 귀여웠답니다.

배움과 가르침

하나님 안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길 응원부탁드립니다.

학부모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린이학교 왓팬과 맛난 과일셋트 간식과 포토존을 만들어주셔서 맛나게 먹고 사진도 예쁘게 찍었습니다. 학부모에서 아이들이 썰렁해할까봐 신경 많이 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주 10일(월)~12일(수) 까지 안산(대부도)로 2박3일 개학여행을 갑니다. 맛있는 음식도 함께 요리하고, 즐거운 경험도 함께하고, 자연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오겠습니다. 서로 친해지는 시간이 되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수업이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멋쟁이들은 반갑기도 하면서도 멋쩍은 얼굴로, 또는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듯한 얼굴로 등교하곤 합니다. 여행은 벌써 먼 이야기인 듯, 멋쟁이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일상을 꾸려갔습니다. 새롭게 진행되는 수업들과 교재, 배정된 교실, 부서와 동아리, 청소구역 등등 혼란스러우면서도 붐 떠있는 것 같은 공기가 여전히 맴돌았지만, 차차 적응해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입니다. 선생님들도 바쁘게 지내다보니 몸의 이곳저곳이 신호를 주었지만, 다행이도 잘 치뤄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특히 신입생들은 긴장을 내려놓지 못했던 터라, 날이 갈수록 많이 피곤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늦게까지 정태일 목사님의 진행 하에 리더십 트레이닝의 시간을 가졌던 5학년과 학생회 임원들도 그랬겠지만, 그런 티 없이 선생님들과 함께 진지한 배움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고학년부터 저학년에까지 꼭 살펴보고 나니, 이번 학기도 여지없이 특별한 기간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큼니다. 앞으로의 생활도 함께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방 생활공동체의 새 식구 조민아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은 “지내시기 어떠세요?”입니다. 저를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주시는 생활공동체 지체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제 자신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저는 요즘 우당탕탕, 오락가락 그리고 up and down하게 지냅니다.

‘하루 중 언제 가장 즐거운 가요?’ 1월 기독교대안학교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질문입니다. 고민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식사요’ 멋쟁이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간 후 잔잔한 일상 속에서 공동식사는 하루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맛있는 점심에 들뜨기도 했지만 가장 큰 즐거움은 함께 식사하시는 지체 분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바라던 대가족을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배도 마음도 부릅니다.

‘너무 춥죠?’ 겨우내 무림리는 역시나 추웠습니다.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이 아신 걸까요? 12월 초 제가 지내는 그루터기에는 새로운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훈훈하다 못해 집이 더운 날도 있었죠. 물론 새 보일러 작동법 미숙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너무나 따뜻하게 보낸 겨울이었습니다. 어느날, 오후엔가 김영화 권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조민아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시나봐요.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한걸 보니..’ 네, 정말 그런가 봐요.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스게 지내는 나날들 속에 저를 힘들에 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차분한 일상이 반가웠지만, 몇일이 지나니 무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여가 시간에 뭐하세요?’ 멋쟁이 선생님들을 따라다니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빈 시간을 즐기려 노력하며 지냅니다. 재봉틀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수영도 연습하고, 차도 마셨다가, 유튜브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조민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96, 254, 539

성경 : 이사야서 58장

말씀 : 진정한 회개의 재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고, 관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립과 불화가 불거지는 정황 속에서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사순절>

사순절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길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윤산 청년의 비염수술 이후 경과의 회복을 위해서.

- 사랑방공동체학교의 새학기 출발을 위해서.

<생활공동체 소식 >

27주년 공동생활 기념주일을 맞아 공동생활 식구들은 토요일에 모여 기념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공동체 곳곳을 평상시와는 다르게 꼼꼼히 살피고 청소하여 주일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공동식사와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하고 함께 저녁도 먹으면서 한 식구임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